

오카모토 다쿠지, 『근대일본의 과학론: 메이지유신에서 패전까지』 (나고야대학 출판회, 2021). 552쪽 [岡本拓司, 『近代日本の科学論: 明治維新から敗戦まで』, (名古屋大学出版会, 2021).]

김범성†

‘국체’와 ‘민족 정체성’을 위협하는 과학

도쿄대학의 과학사학자 오카모토 다쿠지(岡本拓司) 교수의 역작이다. 500 페이지가 넘는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나 진화론, 헤겔 철학이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평가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크게 넘어서지만, 최근에 나온 중요한 저작이라고 판단되기에 필자가 읽은 방식으로 이 책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이 책의 큰 줄기는 과학의 사상사, 과학을 둘러싼 담론의 사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에는 ‘과학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저자는 학문적인 수준에 도달한 과학철학이나 정치사상뿐만 아니라 과학에 관한, 혹은 과학을 둘러싼 잡다한 담론들도 시야에 넣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물리학자나 철학자가 논의한 과학철학적 내용이 중심이 되지만, 제6장에서 제8장까지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제9장에서 제12장까지는 과학과 민족주의, 그리고 제13장에서 제16장까지는 전시체제하의 과학 담론이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이렇듯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 까닭에 이 책을 읽는 방식은 독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심적인 줄기는 ‘국가/민족’과 ‘과학’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945년 이전의 일본에서 과학적/합리적/서구적인 정신은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등장한 국가 체제는 덴노

† 도쿄이과대, bounsoung@rs.tus.ac.jp

(天皇)를 받드는 이념을 지니고 있었고, 여기에는 서구적인 가치관과는 모순되는 지점이 존재했다. 즉 ‘일본적인 국체’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는 ‘반서구’적이고 ‘반근대’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 ‘반과학’적인 담론들이 넘쳐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문명개화’나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구의 과학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과학자 그룹을 중심으로 서구와의 연구 경쟁을 통해 일본인의 지적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일본의 명예나 위신, 문화적 지위를 드높여 국위선양을 하고자 하는 흐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과학’은 실용적인 측면에서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건 필요하기는 했던 것이다.

이렇듯 ‘국가’와 ‘과학’이 묘하게 얽힌 상황에서, 꺾끄러운 존재로 등장한 것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한 마르크스주의였다. 학력 엘리트를 포함한, 적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깃발이 나무끼는 가운데, 유물론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과학’이란 위험한 이데올로기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이다. 학생들의 ‘좌경화’와 관련해서는 교육 당국을 중심으로 서구의 사상이나 과학에 대한 편중이 문제로서 인식되었고, “국체 관념”이나 “국민 문화”가 중시되는 가운데 1932년에는 국민정신문화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고도국방국가”를 추구하는 군부나 기술 관료들은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총력전 체제 속에서는 과학/기술이 지닌 힘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의 맹주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과학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과학 일본”이 “대동아의 과학 지도자”임을 보여 줄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전시체제하의 일본에서는 “과학주의의 철저”나 “국민성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등의 표어들이 등장하게 된다.

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학’에 대한 편중은 ‘일본적인 국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고, 우익적/민족주의적인 담론이 득세해 가는 가운데 과학 엘리트의 “국적을 무시한 과학적 귀족주의”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즉 “일본의 과학화”와 더불어 “과학의 일본화”도 요청되었고, “과학기술의 일본적 성격”이나 “일본 과학”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본 과학”의 원천을 찾아 “그 본래 모습”이나 “독자성”을 밝히고자 하는 과학사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가 “일본인계”

라거나 “서양 과학은 동양에 유래한다”는 등의 특이한 주장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듯 총력전 시대의 일본에서는 ‘과학’과 ‘일본 정신’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미국과도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아무리 정신력으로 무장한다 한들 즉창으로 미군의 B29를 무찌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일본이 미국에 대해 과학에서 패배하였다는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이 책의 분석 범위는 실질적으로 1945년에서 끝난다. 한편 저자의 속내는 대부분 행간에 숨어 있는데, 이는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담론들 중 일부가 과거형에 그치지 않고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까닭에 저자로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오카모토 교수는 역사학자로서 덤덤히 그 담론들을 분석하고 있을 뿐이지만, 한국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는 한국 사회의 과학 담론을 분석하는 데 쓸모 있는 하나의 보조선을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될지도 모른다.